

정부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발굴과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3.25.(수) 한국경제, “대전 안전공업 '고위험' 방치한 고용부”

- 고용노동부는 23년부터 25년까지 안전공업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올렸으나, '23년 실시한 일반 감독·점검 이후 추가 현장 정밀 점검을 하지 않음

2. 설명내용

□ 정부는 산재이력, 위험기계·기구 보유, 업종 등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조·기타 업종의 고위험사업장 약 3만 5천개를 추출하여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고위험사업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힘쓰고 있음

- 그간 감독행정 여건상 모든 고위험사업장을 감독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나, 올해는 감독관 증원과 감독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많은 고위험사업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임

* △감독관 수: '25년 1,445명 → '26년 2,095명
△감독물량: '25년 2.4만개 → '26년 5만개

□ 우리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 외에도 고위험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현장 감독, 지붕 추락사고 예방, 영세한 작은 사업장 지원·점검 등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점검·관리도 적극 추진해야 하는 만큼,

- 한정된 감독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배영일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온남이 (044-202-8902)